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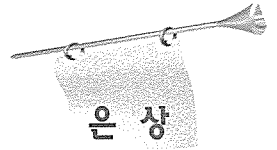


담 배

서울 중대부속초등학교 4학년 3반 이 승 아

작년 봄 지영이네 집에 가게 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의 집에 가게 되어 풍선처럼
 동동 떠 있었다.
 “우리 집에 가면 냄새가 나서 어떡하지?”
 지영이의 말에 놀라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물었
 다.
 “무슨 냄새?”
 “담배 냄새! 우리 아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셔.”
 나는 속으로 픽 웃었다. 담배 냄새 때문에 걱정을
 하다니. 그러나 지영이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토할
 것 같았다.
 나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줄은 처음 알았
 다. 우리 아빠도 담배를 피우신다. 그래도 난 몰랐
 다.
 우리 아빠는 하루에 담배를 딱 두 번 피우신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래서 난 우리 아빠가
 하루에 담배를 두 번만 피우시는 줄 알고 있었다. 그
 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
 우리 아빠는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 언제나 나에게
 뽀뽀를 하신다. 그때 나는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아서
 절로 얼굴이 찌푸러지곤 했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담뱃갑에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글
 도 써 놓았다.
 어렸을 때 아빠가 담배를 끊게 하려고 별의별 방
 법을 다 써 보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신
 다.
 한 번은 아빠의 담배를 숨졌다. 그러나 결과는 뜻

대로 되지 않았다. 아빠는 담배를 사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
 또 한 번은 아빠에게 ‘제발 담배 좀 끊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
 지영이네 집에 갔다 온 날 저녁, 엄마께,
 “지영이 아빠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세요.” 하
 고 걱정을 하며,
 “엄마, 아빠는 담배를 끊어야 해요.”하고 말했다.
 그런데 엄마의 대답이 너무나 엉뚱했다.
 “아빠는 일하시기 힘들시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를 피우는 거야.”
 내 생각은 엄마와 다르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나빠져 일하는 게 더 힘들
 것이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록키 음악 같은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나 하나만 아빠를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첫번
 째는 엄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여보, 담배는 건강에 나쁘니 끊으세요!” 하고 말
 하면 우리 아빠는 담배를 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빠의 마음이다.
 아빠가 ‘담배를 끊어야지. 꼭!’ 하고 결심만 하면
 된다.
 나는 아빠께 담배를 피우면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를 계속 말씀드리겠다. 왜?, 오래오래 사셔야 나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담뱃갑속의 두얼굴

서울 상계초등학교 5학년 4반 오 승 영

우리 집 한켠에는 많은 담뱃갑들이 있다. 그런데 어젯 밤에는 담뱃갑 속의 담배들이 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 나는 담배들의 대장이란다. 네가 승영이구나?”

“음, 맞아 그런데 너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휴, 그래 나는 요즘에 걱정이 태산 같아, 담배들이 서로 싸우거든. 왜냐구? 그건 다 사람들의 흡연 때문이야. 우리들은 탄생부터 독을 갖고 태어났거든.”

“그게 무슨 소리아?”

“음...우리들이 처음 발견된 건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는데 원주민들이 흡연을 한게 우리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한국은 1610년 일본에서 들어왔어, 이제 우리들의 탄생은 알겠지?”

“어, 그런데 그게 나쁜 거야?”

“아니, 우리들에게 들어간 물질들이 너무 독성이 강해. 한 4,000여개가 들어가는데 청산보다 더 독성이 강할 정도라고 해. 혹시 너 나프탈렌 아니?”

“알아, 쉽게 말해서 옷장의 벌레를 방지하는 약이지?”

“잘 알고 있구나. 그 밖에 담배에는 니코틴, 암모니아, 청산등이 들어간단다.”

그때 또다른 대장담배가 제가 있는 쪽으로 왔어요.

“넌 누구니?”

“난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된다는 담배들의 대장이야.”

“그런데 너랑 아까 그 흡연 반대하는 대장이 말하는 소리가 너무 억지 같아서 왔어. 담배도 좋은게 많아, 영화 같은데에서 담배 피는걸 봐, 정말 멋있다고, 또 여자들이 피면 훨씬 날씬해 보여. 그리고 담배를 20여개 국에 수출해서 천만달러나 벌었어. 그러니 담배는 좋은거야.”

“아니야, 영화에서 볼 때는 멋있지만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이니? 멋 보다는 건강이 중요해. 그리고 여자들이 담배를 피면 날씬해질지는 몰라도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 또 담배를 한번 피면 끊을 때 살이 찌다구. 그리고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피는건 정말 정말 위험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세계에서 5위야.”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알았어, 너희들이 너무 자기주장만 하니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흡연 반대대장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빠와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런데 담배 때문에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는건 싫어. 그리고 담배를 피는 장본인 보다 옆사람이 더 괴로워. 아빠는 주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 다음 들어가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건 자유지만 모든 사람들이 흡연으로 빨리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멋도, 달라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야.

이런 말도 있잖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야. 흡연 찬성대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내 말대로 앞으로는 흡연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조금 피는건 좋다고들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중독이 되고 만다고 해. 그러니 앞으로는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아야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야.”

그러자 흡연 찬성대장이 말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흡연을 하지고 했지만 너의 말을 듣고 나니 흡연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는 참 고마운 친구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주어서 고마워. 그럼 안녕!”

이때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승영아, 너 담배갑 들고 뭐하니? 어서 식사하자꾸나.”

“아빠, 아빠는 담배 피우시지 마세요. 흡연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 알았어, 아빠의 건강을 생각해 주어서 고마워. 어쨌든 빨리 식사하자.”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담배는 가시 있는 장미같이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참고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아빠!’ 